

전주시-진주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우범기 전주시장·조규일 진주시장, 양 도시 발전·협력 강화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서 체결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전주시와 진주시가 상호 발전을 응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조규일 진주시장은 20일 진주시청에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모하는 등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우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고, 양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했다.

이에 화답하듯 조규일 진주시장도 전주시의 발전을 응원하며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전주시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

전주와 진주는 도시 명칭에 고을 '주(州)'자가 있는 전국동부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로, 전국 15개 도시와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회원 도시는 전주와 진주를 비롯해 △광주(경기) △양주 △파주 △여주 △원주 △청주 △충주 △공주 △나주 △경주 △상주 △영주 △제주로, 회원 도시들은 매년 정기 총회 등을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조규일 진주시장은 20일 진주시청에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모하는 등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또 전주와 진주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야간관광도시에 함께 선정된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주시는 전주의 문화·예술을 재해석해 낮의 전주와 180도 다른 밤의 전주에 가진 매력을 선보이는 'Upside-Down 전주'를 운영할

예정이다.

진주시의 경우 '365일 불과 빛이 흐르는 진주의 밤, 리버나이트(River Night)'라는 주제로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해 야간 관광 콘텐츠, 야간 경관 명소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동부도시사이자 이따금까지도 닮아있는 전주와 고향

사랑기부제로 함께 힘을 모으게 되어 기쁘다"면서 "두 지역이 상호협력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전주시와 진주시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 주소를 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지역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을 통해 모인 기금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게 되며, 참여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시스템(www.ilovegohyang.go.kr)'을 이용하거나, NH농협은행을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한 후 기부하면 된다.

기후변화주간 기후행동 캠페인

전북환경청, 22일 지구의 날 맞아 다채롭게 전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2일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자 기후변화주간(4.21.~27.) 동안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고자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 주도의 세계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기후변화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탄소중립 실천 일상화,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 등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다화용품 사용 등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실천을 위해 선명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는

환경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영화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비점오염 저감, 올바른 분리배출 등 친환경생활 실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는 '청사 소등행사(20:00~20:10)'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전북개발공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전 북혁신도시 내 '기저지 줄기' 캠페인을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하는 의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2주간 전북환경청 누리소통망(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화용품 사용하기, △소등행사 참여 △대기질력 차단하기 등 기후행동 실천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한다.

정부 보건의료정책 안내·의료현장 애로사항 청취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 의료정책실장, 전북대병원 방문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 의료정책실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을 방문했다.

임 실장의 이번 전북대병원 방문은 필수·응급의료 등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설명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8일 오후 전북대병원을 찾은 임인택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병원 측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병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간담회 및 라운딩에는 보건복지부에는 임인택 보건 의료정책실장과 강준 의료보장정책실장, 신요한 보건 의료정책과 사무관이, 병원 측에서는 이시진료부부 부원장, 양종철 기획조정실장, 조대선 어린이병원장, 정태오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병원 측에서는 지역 의료현장에서 겪는 의료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구상적으로 의료 인력의 선택과 집중,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의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과대학 인재들이 권역 내 책임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정원 증원과 우선 배정이 필요하며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

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코로나 중증환자의 치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위드코로나'형 음압병실의 증설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임인택 실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립대병원의 공적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의 료기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한 뒤 "정부에서도 의료 인력과 필수시설 등 지역의 요구를 탄력적으로 검토해 권역책임 기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설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교통약자 이동 무료 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어울림 버스와 이지콜 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무료로 운행했다.

공단은 교통약자 셔틀버스인 어울림 버스 4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교통약자 특장차량 56대,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인 교통약자 전용 택시(임차 택시) 20대를 운행 중이다.

공단은 또 이날 장애인이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용객들에게 꽃다발과 음료를 증정하는 행사다.

꽃다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농가로부터 구입했다.

특히 교통약자지원부 이지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후원 물품을 구입해 나눔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집중 단속 실시

제9지구대, 음주운전 단속

전북경찰청(청장 강형수) 고속도로 순찰대 제9지구대는 소양TG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에 대한 스몰존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 교통과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도내 15개 경찰서 및 2개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일제단속 및 상시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9지구대는 주·야간 일제단속 이외에도 휴게소, 졸음쉼터, 음주 의심차량

추적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단속을 실시해 올해 10건의 고속도로상 음주운전을 단속한 바 있다.

또 상춘객 및 행락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덕유산, 지리산 등 도내 명승지 및 관광지 소재 TG에서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을 지속 실시 할 방침이다.

9지구대 이효관 대장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며 "운전자분들께서는 음주 의심차량 발견시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112 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제12지구대,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예방 위한 합동단속

전북경찰청(청장 강형수) 고속도로 순찰대 제12지구대는 고속도로 내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 단속은 최근 전국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톨게이트(TG)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됐다.

12지구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할 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와 관련된 비율이 68%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관련 통계를 따르면 교통사고 치사율(사업용 기준 : 화물3.1)이론

2.5)버스1.5)택시0.7)이 화물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 톨게이트(TG)는 군산산업공단으로 인하여 많은 대형 화물차들이 통행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안전띠 미착용, 적재물추락방지위반, 화물 과적 및 자동차관리법 화물차 불법구조 변경 등의 화물차 관련 모든 법규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였다. 한편 이날 단속뿐 아니라 화물차 노후 후면반사지 배포, 안전운전 및 졸음운전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12지구대(대장 임택)는 "이번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시에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0회 부안마실축제

2023. 5.4. - 5.6.

부안군 일원(주행사장:매창공원)
주관 |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

대표프로그램

텃밭할매 팍파리

마마스앤파스 뮤직페스티벌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야간퍼레이드 신들의 행차

뮤지컬 '힐날릴제'

상시프로그램

- * 벗짚놀이터
- * 밭문쓰기 체험
- * 인생마실킷
- * 조선풍류 복식체험
- * 농촌이야기
- * 할매잡방
- * 기부나눔
- * 군민체험부스